

‘영광형 햇별·바람 기본소득’ 주목

이재명 대표 시정연설서 언급

“신재생에너지 거점 육성해야”

100만원 민생지원금도 큰 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조하면서 영광군의 기본소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서남해안 지역의 신안과 영광을 직접 언급하며, 해당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영광형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과 영광 등 서남해안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현재 영광군이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창출된 경제적 효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순환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1차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돼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 지원금은 농·축·수산물, 외식업, 정육점 등 주요 소비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판매점 16.6% ▲일반 한식 음식점 12.3% ▲정육점 8.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을 찾아 장세일 군수(당시 후보) 등과 기본소득 등을 두고 지역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이 같은 소비 촉진 효과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정책으로 약 65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왔고, 18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영광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원금 덕분에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고, 매출도 많이 올랐다”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거두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

체가 함께 책임져야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검토 중인 기본소득 논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만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 설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칠 경우,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정책 관계자는 “영광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공직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21일 AI메타버스센터

목포시가 오는 21일 AI메타버스센터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신 기술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 적용 방법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와 딥시크(Deepseek) 관련 보안 이슈 대응

방안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 매년 1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교육을 확대해 스마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군, 서부권 지역대학 3곳과 RISE 협약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 협력

영암군이 지난 7일 서부권 3개 대학인 새한대·동아보건의대·목포과학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대학이 지역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서에는 ▲지역특화 전문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 리빙랩 기반 지역사회 문

제 해결 ▲지역주민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담았다.

영암군과 3개 대학은 기존 교육부 중심 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대학을 지원·협력해 ‘인재 양성-취업-정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우승호 영암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영암군과 지역 대학의 유기적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동반 성장하는 모범을 창출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매개로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본격 추진

2026년까지 맞춤형 AI 등 개발

완도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은 해양치유센터를 찾는 치유객의 건강 정보와 해양치유 자원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에 접목해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완도군은 2026년 3월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테라피실 운영 자동화 시스템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수집·분석·관리 시스템 ▲해양치유 건강 데이터 맞춤형 AI 등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치유객 테라피실 배정·예약·이용·대기 현



완도해양치유센터 전경.

황 등을 관리하는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매출·통계 현황을 관리하는 ‘완도해양치유센터 테라피실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월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완도해양치유센터 운영 자동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수집·분석·관리 시스템’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위해 구축하며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치유 건강 데이터 맞춤형 AI’를 개발해 해양치유 건강 정보 구축, 개인 맞춤형 건강 분석·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축물’ 일제 정비

위성사진 대조 2860건 선정

해남군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다.

‘유령 건축물’은 건축물은 해체·멸실되었으나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과의 불일치로 건축물 통계가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건축 인허가 시 대상부지에 유령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말소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유자 상속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말

소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걸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군은 유령 건축물 일제정비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유령건축물을 직권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해 11~12월 동안 도로명 주소와 건축물 대장을 일일이 대조 분석해 총 6837건의 1차 자료 추출을 마쳤다. 올해 1월 위성사진 대조를 통한 2차 분석을 통해 총 2860건 결과를 추출했다.

군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올해 1분기부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직권 말소를 추진해 유령건축물 일제정비사업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상지별로 읍면 현장점검과 소유자 신청 안내 및 통보, 공고 절차를 거쳐게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2월호

2025년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뿌리 깊은 문화 파워 K-헤리티지

-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한국 브랜드로 사랑 받는 5대 고궁, 중요
- 아는 만큼 보이는 광주·전남의 문화유산

문화 화제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3인 인터뷰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근대 사적지 옆 이강하 미술관
이강하 컬렉션 모태... 남구 첫 1층 공립미술관

맛과 함께
화순 여행
개미산부
만연산술
환산정길

예향 초대석
보성 두달살이, 『미생』 시즌3 연재 앞둔 작가
윤태호
“인생에 완성은 없다, 꿈꾸면서 나아가길 뿐”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바다향 가득 남도 겨울 맛기행

해외문화기행
천재 예술가의 아우라
바르셀로나 피카소미술관

호남의 누정
광주 교산정
늘 푸른 대나무 많은 선비의 절개와
아들의 효심 깃든 정자

문화계 소식
올해 광주·전남 준비 중인 공연 라인업

화제의 문화 현장
올해는 우리 집에 작품 한 점 걸어요
동구미술은행 컬렉션 ‘동구동락’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370년 씨간장’ 들고 유네스코 다녀온
진장 명인, 기순도